

눈 성장 상태부터 확인... 18세 이후 권장



건강 바로 알기 시력교정술

김재봉

광주 신세계안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다. 안경을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을 마치자마자 시력교정술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대학 입학, 사회 진출을 앞두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외모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눈의 성장 상태 확인이 먼저...라식, 라섹, 렌즈삽입술=수험생이 시력교정술을 받으려면 우선 눈의 성장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안과에서는 만 18세 이후에 시력교정술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대부분 사람의 눈은 만 18세를 기점으로 성장을 멈추는데, 시력의 변화가 멈추고 최소 6개월 이후에 시력교정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눈은 중요한 부위인 만큼 회복기간과 통증여부, 앞으로의 진로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라식수술은 각막에 절편을 만들어 젖혀두고 각막의 실질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해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한 후 각막 절편을 다시 덮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충격에 약하고 안구건조증 및 번짐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섹수술은 희석된 알코올로 각막 상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벗겨낸 뒤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각막 두께가 얇아도 수술이 가능하고 라식처럼 강한 충격에 의해 각막절편이 손상될 가능성도 없으나, 라식수술에 비해 시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리고 2주 가까이 통증이 있는게 단점이다.

렌즈삽입술의 경우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눈 안

만18세 기점으로 시력변화 멈춰

라식·라섹·렌즈삽입 등 교정술

각막 손상 최소화 ‘스마일 라식’도

에 렌즈를 넣는 수술이다. 라식과 라섹 수술이 하기 힘든 -9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시나 각막이 너무 얇은 경우에 렌즈삽입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하지만 다소 비싼 가격이 부담이다.

◇스마일 라식=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마일라식’으로 불리는 ‘스마일(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은 이 모든 수술 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수술방법이다. 회복력이 빠른 기존 라식의 장점에 각막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라섹의 장점까지 결합한 3세대 시력교정 수술이다. 각막 표면을 절삭하거나 표면을 열지 않고 실질 부위만 교정량만큼 분리해 펌토세컨드 첨단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수술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각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0mm 이상 각막을 절개해 시력을 교정하는 라식과는 다르게 스마일 수술은 약 1-2mm의 최소 절개만으로 각막 실질부만 제거한다.

수술 다음 날부터 근거리 작업은 물론 가벼운 운동과 화장도 가능하다. 또한 각막무결을 만들지 않아 라섹과 같이 외부 충격에 강하며, 각막 절개 부위가 적어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등 부작용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최소 절개를 통해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일라식의 수술 난이도는 기존 시력교정술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스마일라식의 수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도가 높은 의료진을 선택해야 한다.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수술 시간을 단축해 수술 중 외부 감염 및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광주 신세계안과는 지난 2013년 광주전남 최초



시력교정술을 위한 병원을 선택할때는 검증된 의료진과 함께 정밀검사를 충분히 하고 눈에 맞는 수술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로 스마일수술을 도입한 후 초남 최초로 수술건수 5만례를 달성했다. 또 고가의 첨단 스마일수술 장비인 ‘VISUMAX’ 3대를 운영하여 과부하 문제를 최소화 했다. 이로 인해 수술시간을 단축하여 환자의 대기시간을 대폭 줄였다. 또한, 각막 최소 절개로 신경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고 LOW 에너지 사용으로 스마일 수술 중 발생하는 가스 기포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렌티클 표면에 매끄럽게 하여 각막 손상을 방지하고, 시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안구건조증이나 수술 후 빛 번짐 가능성 등의 부작용 발생 확률을 낮췄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창업기업 ‘케이블루바이오’ ‘에스디바이오센서’로부터 10억원 투자 유치

화순전남대병원 창업 정밀의료 바이오기업인 케이블루바이오(주)가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냈다.

20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케이블루바이오(대표 신명근 전남검사의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에스디바이오센서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투자에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외에도 의약품효능시험 및 신약개발 지원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자회사 ㈜에스에스메디피어도 참여했다.

케이블루바이오는 신명근 대표가 지난 2020년 8월 난치성 신약 개발 및 정밀의료 분자진단 제품 개발을 위해 설립한 정밀의료 바이오 전문기업이다. 정밀의료 구현을 통해 혈액암을 포함한 난치암과 노화, 만성퇴행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동반진단 표지자를 발굴하고 이를 플랫폼 기술에 탑재, 난치암의 조기 발견과 동반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혈액암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차세대대형기 서열분석용 키트는 이미 제품화해 국내 4개 이상의 대학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또 혈액암 차세대 유전체분석 키트는 개발과정에서 분자진단 분야 최고 저널인 ‘Journal of Molecular Diagnostics’에 게재됐고, 특허출원을 마쳐 전문성과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상태다. 더불어 올해 발표된 세



계보건기구(WHO)의 ‘혈액암의 새로운 진단 기준 및 분류체계’를 반영,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업데이트된 패널 및 키트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를 표적하는 항암신약 후보물질과 고령 난치암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천연화합물에서 유도한 신규 항암 예비물질 발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케이블루바이오는 개발 중인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유용성과 동반진단, 예후예측 등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큰 동력을 얻게 됐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내는데 든든한 동반자를 두게 됐다.

신명근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바이오기업의 투자 환경에서 이뤄낸 성과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투자 유치를 통해 전문인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등 더욱 뛰어난 연구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동반진단과 정밀의료의 실용화와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심장학 ‘화요 세미나’ 600회 기록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 16년간...공학·생명 등과 융복합 연구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 교수)가 국내 심장학 분야 발전을 위해 16년간 개최하고 있는 ‘화요 세미나’가 600회를 맞았다.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는 최근 병원 행정동 5층 세미나실에서 ‘화요 세미나’ 600회를 맞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규호 교수가 ‘핵 FAK의 혈관세포증식 억제제 통한 스텐트 신생 내막 증식 억제 효과’를 주제로 강연한다.

‘화요 세미나’는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의 심장질환 특성화연구센터(2013년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로 명칭 변경)로 지정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고의 의학 세미나다. 세미나에는 융합연구센터의 교수와 연구원들을 포함해 국내 의과대학·공과대학·간호대학·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기계연구원·국립보건의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미주리대학교 등의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의학·공학·간호학·생명공학 등의 융복합을 통해 융합연구의 초석을 다졌으며, 국내 및 세계를 선도하는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능력과 철학을 익힐 수 있는 배움의 장이다.

‘화요 세미나’가 16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탄탄한 연구력과 친화력이 있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학회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 형성과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정명호 센터장은 지난 2005년부터 전남대병원이 주관해 시행 중인 한국인 급성 심근색전증 등록연구(KAMIR)를 이끌어 오면서 대한심장학회 심근색전증학회 회장을 맡아 많은 KAMIR 연구자들을 초청했다. 또 한국혈전지혈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중재의료기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혈전 및 동맥경화 분야, 의료가기 분야, 심혈관중재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의학뿐만 아니라 공학·의학·기초과학 전문가는 물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학학 학부장을 맡아 한림원 석학들도 초청해 왔다.

이 밖에 전남대병원 융합연구센터는 국내외 산업계·대학·연구소 등과 함께 심혈관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실행해 왔으며, 특히 스텐트 관련 의료가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이름을 활용한 ‘CNUH stent(일명 타이거 스텐트)’를 개발했으며, 한 단계 더 진보된 약물 용출 스텐트인 ‘타이거 레블루션 스텐트’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승인을 받았다. 타이거 레블루션 스텐트의 경우 최근 범부처의료기기 사업에 선정되어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우수 과제로 최종 평가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한심장학회 20년 연속 전국 최다 논문을 발표, 현재까지 심혈관계 융합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은 1860편, 저서 93권, 특허 80건 등의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개원 117주년 기념 감사예식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최용수)은 최근 병원 예배실에서 ‘개원 117주년 기념 감사예식’을 가졌다. 광주기독병원은 1905년 11월 20일 미국인 선교사 Dr. Nolan에 의해 ‘광주제중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해 광주현대의료의 시작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 출시 기념 20% 할인 한정판에 ★

“남도맛기행” 먹거리 굿즈 출시



구매문의 (주)더킹핀 070-4238-6768

달콤주주
GWANGJU · NAJU

광주와 나주의 디저트로 하루를 달콤하게 시작

나주배 쌀빵
Pear rice bread

달콤주주
달콤한 빵이 나주

₩13,000
10,400 원

담솔목주
DAMYANG · MOKPO

담양과 목포를 담은 한 잔으로 피로를 날리며 하루를 마무리

담솔목주
담양 목포의 맛

₩15,000
12,000 원

01. 광주의 오월 이야기를 담은 우리밀 오월쿠키 | 02. 나주의 쌀과 배로 건강하게 만든 나주 배쌀빵 | 01. 담양 대일솔이 들어간 약주 | 02. 목포 앞바다에서 잡아 말린 수제 쥐포 | 03. 청정 전남 바다의 김으로 만든 아몬드김스낵